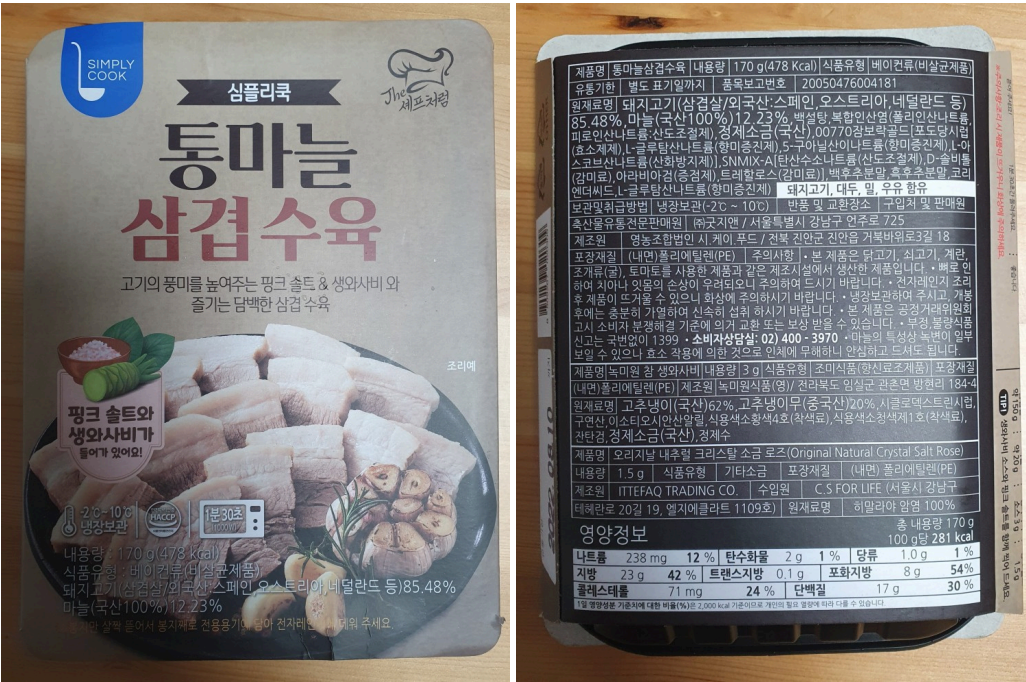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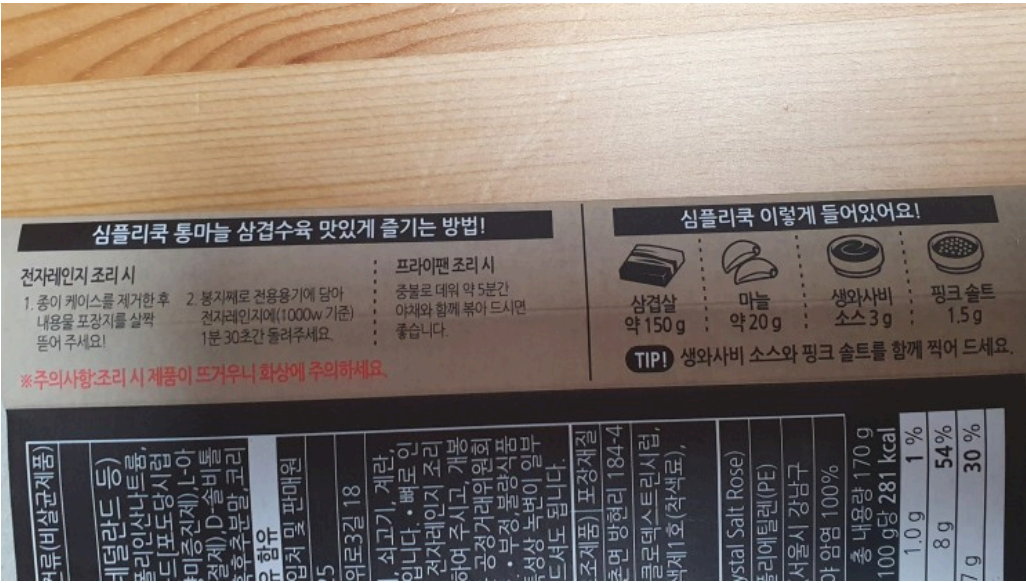


오랜만에 작성해 보는 편의점 음식 리뷰.  
새벽에 갑자기 야식으로 불닭에 수육 곁들여서 먹고 싶어서 샀다.



가격은 6900원, 중량은 170g, 칼로리는 478kcal다.  
살 때 비슷한 수육 제품이 하나 더 있었는데, 이 제품 칼로리가 좀 더 낮았다.  
거기에 핑크 솔트와 생와사비까지 들어가 있다고 하니, 뭔가 좀 더 고급져보여서 샀다.



측면에 조리 방법과 내용 구성이 나름 친절하게 적혀 있다.





종이 케이스 안쪽 구성품.

내가 제대로 안 살피본 건지 잘 모르겠는데, 내용물 포장지 뜯는 부분이 없어서 자르는 데 고생을 좀 했다.

대충 뜯고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간 돌려주었다. 전자레인지 돌릴 때 당연히 핑크 솔트와 생와사비 소스는 빼야 한다.



불닭과 펍시 제로까지 세팅하고 함께 먹어보았다.

편의점 수육을 너무 오랜만에 먹어봐서 잠시 잊고 있었는데, 편의점 수육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맛이 아니다.

한 입 먹자마자 아차 싶었다. 맛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데, 수육이라기보다는 수분기 있는 짜지 않은 베이컨에 가까웠다.

맛이 없었던 것은 절대 아닌데, 내가 평소에 수육을 자주 해먹는 편이기도 하고 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먹어서 그런지 조금 아쉬웠다.

그래도 불닭, 와사비, 마늘, 핑크 솔트까지 함께 곁들여 먹으니 꽤나 그럴싸한 야식 한 끼 할 수 있었다.  
수육 해먹거나 사 먹기 어려울 때, 간단하게 수육 먹는 기분 내고 싶을 때 한 번쯤 먹어볼 만하다.